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 : 창세기 13:1-14:24

요절 : 창세기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 아주 놀랍고 축하할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FIFA가 주관한 U-20대회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죽음의 조에서 탁력을 예상했습니다. 한국팀이 결승까지 갈것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축구 대표팀의 특징은 객관적인 전력은 분명 상대팀에 뒤져 있지만, 매번 승리를 광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선수들의 노력과 함께 감독의 전략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4강 신화를 뛰어넘어 한국의 피파대회 첫 준우승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두고 벌인 전투에서 승리한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브람의 야간 기습 작전이나 다른 족장들과의 인간관계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실제 삶속에서 아브람을 복주시고 그를 영향력 있는 목자로 키워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시대 아브람과 같은 목자로 키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눈을 들어 바라 보라(13:1-17)

1절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봇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큰 곤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히려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한 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있던 ‘네게브’란 곳은 ‘남방’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가르키는 명칭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네게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동쪽으로 계속 가서 고향 갈대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최초로 정착했던 벤엘은 얼마 전에 기근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가 최초로 정착했던 곳 벤엘에 이르러 벤엘과 아이 사이 곧 그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다시 들어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3,4) 벤엘로 다시 돌아온 아브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은 애굽인들에게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겁쟁이로,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고생 고생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아브람과 벤엘로 다시 돌아온 아브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또 사래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속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의 어떤 문제도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돌아보시고 위기의 때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애굽의 수장인 바로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인물로, 꿀릴 것이 없는 강력한 존재감을 뿐내게 해주셨습니다. 벤엘로 돌아온 아브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믿음도 덩달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셨을 때 봇은 옆에서 있다가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축복을 받게 되자 가족간의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동거하기에 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5)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봇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봇은 사랑하는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 그 이상의 사이였지만 이 문제로 자칫 원수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이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봇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마 봇과 함께 고생하며 정착을 했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가축들이 많아진 이곳을 이젠 봇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곳을 개척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봇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봇에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봇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더니 땅에 물이 넉넉함으로 그곳을 택하고 옮겨갔습니다. 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봇은 아브람에게 있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봇에게 아브람은 삼촌이자 족장으로 어디든 그들 데리고 다니며 보호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아브람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아브람이 봇에게 우선권을 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봇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목동들을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으니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입니다. 그러나 봇은 이게 웬 뜄이냐 하며 날름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아브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들어 땅을 살펴보고 소동 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이 삼세권이 좋은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봇은 물세권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일단 물이 넉넉해야 하는데 소동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땅은 여호와 앞에 악한 곳 죄악된 곳이었습니다. 봇은 이러한 상황앞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유리한 곳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살것인가? 봇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봇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봇의 눈과 마음은 이미 소동땅에 있었습니다. 일단 거부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봇은 아브람에게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 사업이 없다고 넉살 좋게 말했을 것입니다.

봇의 문제が 무엇입니까? 봇은 풍부한 물, 그리고 비옥한 땅으로 가고자 결정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몸으로만 아브람을 따라 다녔지, 아브람에게서 영적인 것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봇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람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아브람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하면 복덩어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람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복의 웅덩이, 믿음의 조상,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 가치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머릿속으로 현실적인 유익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소동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동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4:12에 보면 룻은 소동 성에 들어가서 거했으며, 19:2에 보면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곳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람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룻은 돌아키지 않습니다. 술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그는 결국 소동에 살다가 큰 화를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창 19:30-38). 우리는 이런 룻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에 기초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손해를 보고, 고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룻을 떠나 보낸 아브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함께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뒤도 안돌아 보고 떠난 룻이 매정하기도하면서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룻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식사를 할 때마다 룻이 생각났고, 혼자서 밥을 먹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벨엘까지 왔지만 애굽에서의 드라마 같은 일도 겪었고, 원치 않게 다투는 일이 생겨 아들과 같은 룻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 살아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그에게는 아직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당장 이대로 아브람이 죽으면 이 약속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남자 아이를 거느리고 들어오는 아버지들이 한없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주신 비전은 큰데 비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음을 느낄 때 그는 삶의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런 자식문제와 어려운 세상살이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쪼그라 들어서 아주 아주 평범한 가나안의 주민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함에게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17 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룻이 눈을 들어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람도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룻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이 눈

을 들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람과 룻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 시각으로 보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육신이 편하고, 안락한 것, 자극적인 것, 돈이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면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미래적인 것이 보입니다. 역사적인 것이 보입니다. 겨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온 세계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보여 주셨습니까? 룻이 선택한 땅보다 더 좋은 금 쌔래기 땅, 황금 목초지를 보여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의 광활한 땅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쪽은 사해바다를 넘어 암몬과 모압 땅까지, 서쪽은 블레셋 평야를 지나 지중해까지, 남쪽은 헤브론을 지나 네개브 땅까지, 북쪽으로는 저 갈릴리 지역을 넘어 골란고원까지, 광활한 땅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장차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야 왕국이 이루어질 소망의 땅이요, 비전의 땅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14,15).” 또한 그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앓아 있는 아브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 다니도록 하였습니다(17). 하나님은 삶의 무게에 눌리고, 말씀에 대한 회의로 1차 위기가 찾아온 연약한 아브람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실문제에 코를 박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의와 무력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내면에서 다시 힘이 생기고 비로소 약속의 땅을 받을 영적인 조상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다니면서 비록 현재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자손들이 살게 될 땅이라는 비전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신앙을 잘 계승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또 군사들을 조직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14:1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삼세권을 따라 소동 근처 금써래기 땅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을 들고 걸었을 때 그의 마음에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막을 벨엘 근처에서 남쪽을 더 내려와 헤브론(벨엘로부터 약 4km지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18)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로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어원상 ‘곡창’을 가르키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친교’, ‘동맹’, ‘친구’를 의미합니다. 훗날 이곳 헤브론은 여섯 도피성 중의 하나가 되었고,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 신정사에 있어서 더 없이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았고, 죽으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빼를 그곳에 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불들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기를 바라십니다. 문제에만 매여있기

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학사 목자님들을 전국 학사목자수양회에 보내시고 눈을 들도록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다는 독일에서도 또 신천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 전대센터에서도, 그리고 한 센터를 쓰고 있는 3부의 사모들이 동역하여 개척하는 캠퍼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 우리를 자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코를 박고 있지 않고 눈을 들어야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영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 또한 어렵지만 눈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읊매이게 했던 것을 벗고, 지금까지 깊은 터널을 벗어나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비전입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과 약속에 기초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비전을 품고 일하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티끌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주7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선대 캠퍼스, 그리고 간호대 캠퍼스가 복음화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조선대 캠퍼스 뿐 만이 아니고 오대양 육대주 어느 곳이나 기도 한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요한, 나안드레 목자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늦은 나이에도 선교사로 나가고자 분명한 방향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요한, 나안드레 목자님은 항상 스피릿이 충만하시고, 청년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파송되어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기초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이 약속하신 땅을 밟으며 그 땅의 실효적 지배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땅을 날마다 밟으며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캠퍼스안에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을 적극적으로 나가 그 땅을 밟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양들을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뒤어야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하며 어떤 양들도 성길 수 있는 빼어난 성경선생으로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7월말에 있는 여름수양회와 각국에서 열리는 여름수양회 역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II.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14:1-24)

14장은 롯이 선택한 소동성이 큰 전쟁에 휩싸여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절은 전쟁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며 국제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과 가나안 남부의 5개 연합이 싸운 전쟁입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땅은 아모라벨이란 사람이 다스렸는데 시날 외에 엘라살, 엘람, 고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최강자는 엘람왕인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가나안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전쟁은 소동왕 등 5개국의 가나안 남부 동맹국들이 그돌라오멜 통치 13년째에 반기를 들고 배반한데서 시작했습니다.(4) 다섯 왕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사해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돌라오멜은 다음해인 십사년째에 메소포타미아 3개 나라를 규합하여 그들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지도에서 그돌라오멜 동맹국들은 요단간 동쪽길로 내려왔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스스족속을 하워 기리다임에서 엠족속을 쳤습니다.(5) 파죽지세로 그돌라오멜 동맹국이 영해로 내려오게 되자 다급히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국은 싯딤 골짜기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8) 싯딤 골짜기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들이 진을 친곳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남부 연합국은 이곳으로 적을 유인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룬 것처럼, 역청지대에 그들을 가두어 놓고 학의진을 펼쳐서(?) 역청대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과는 달리 오히려 소동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10) 전쟁의 결과 그돌라오멜 동맹국은 소동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암식을 빼앗아 가버렸고, 소동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획해 가 버렸습니다.(11,12)

13절을 보십시오.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사람 아브람에게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알렸습니다.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알았을 때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세권을 찾아 세상 욕심에 끌려 소동까지 가버린 롯이 전쟁포로로 불잡혀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람은 고소해 하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즉시로 롯을 구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이나 되는 왕들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롯을 구해 오려면 이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이기려면 몇 만명의 군사와 얼마나 많은 무기가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현실의 벽에 갖혀 벌만 동등 구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 십 팔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므레와 에스골, 아빌 족장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아봐야 군사는 천명 낭짓이나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도 너무 모자랐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했습니다. 아브람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려고 하는 롯은 아브람에게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심성의껏 감당해 주었는데, 좀 부자가 되자 더 큰 부자가 되고자 뒤도 안돌아 보고 도망간 양입니다. ()

같이 인격이 출렁한 사람다면 물라도(?) 이런 롯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복덩아리로 삼으신 약속을 받은 인물로 그가 죽으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신구약의 모든 아브람의 자손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복음 역사의 대 혼란이 초래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이 함부로 전쟁이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브람은 전쟁을 좋아하는 체질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래를 여동생을 속인 것처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람이 어떻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롯을 향한 아브람의 목지의 심정입니다. 아브람은 그가 가진 모든 인간조건이 전쟁을 참여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롯을 구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한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목자심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룻을 구출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참전하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람이 승산이 없는 싸움에 그냥 헐기로 참여 했다면 그는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능한 족장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가 목숨을 보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아내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간 기습작전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역청대첩처럼 어이없게 야간에 피아식별이 안되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신 것처럼 작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람과 같은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부 모든 구성원들이 이 시대 아브람처럼 진정한 목자심정과 믿음이 충만한 분들로 빚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17,18절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개선할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하였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평화’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이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1~3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빙 자리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대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개선하는 아브람에게 나왔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19,20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불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얄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브람에게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에 아브람은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아심을 인정하고 감사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십분의 일의 감사 예물은 지금의 십일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십일조의 의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일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람의 개선을 맞이한 사람은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왕도 있었습

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달아났던 왕입니다. 그가 이제 와서 아브람에게 나왔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소돔왕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브람의 전리품을 자신의 것인 낭 달라, 말라 요구합니다. 당시 고대사회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에게 포로와 재물, 모든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소돔왕은 너무도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소돔 왕에게 아브람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람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 한 오라기나 들에琨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이 소돔 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이 죄악 된 소돔 왕과의 모든 관계를 철저히 끊어 버리고자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아벨과 에스겔과 마드레의 분갓은 제하였습니다. 아브람은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위 왕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아브람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람이 한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때론 실수와 허물 투성이 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두려움에 빠져 사래를 누리라고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사정없이 책망하셔서 아브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승리자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덤으로 풍성한 재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아들과 같은 룻과 토지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양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4개국의 연합군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소수병력으로 룻을 구출하려 참전한 전투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셨고, 죄악 된 소돔 왕 앞에서도 욕심과 탐욕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람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고, 그가 아브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돌아보면 항상 실수와 허물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돌아보시고 실수와 허물에 상관없이 승리를 주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친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룻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에만 집착해서 죄악된 세상과 탐욕하고 결국 현실적인 이득은 얻었지만 인생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반면 아브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불들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그에게 주실 땅들을 걸어보며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비전 중에 군사로 훈련할 수 있었고 마침 룻이 끌려갔을 때도 믿음으로 룻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아브람과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들과 우리의 모임에 승리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